

백제문화단지는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우던 백제역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1998년 건립한 한국 최대 규모의 역사테마파크로, 백제왕궁을 재현한 사비궁과 대표적 사찰인 능사, 생활문화마을, 위례성, 고분공원, 백제역사문화관, 백제의 숲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사비성 안의 '능사(陵寺)'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한 백제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과 똑같이 이곳에 재현하여 건립된 사찰이다. 이 사찰에는 부여정림사지오층석탑, 익산미륵사지 석탑 등을 참고하여 오층목탑이 마련되어있다.

3

정림사지 (사적 제301호)

백제가 부여로 도읍을 옮긴 시기(538-660)의 중심 사찰이 있던 자리다. 발굴조사 때 강당터에서 나온 기와에서 '태평 8년 무진 정림사 대장당초(太平八年 戊辰 定林寺 大藏唐草)'라는 글이 발견되어, 고려 현종 19년(1028) 당시 정림사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즉 고려시대에 백제사찰의 강당위에 다시 건물을 짓고 대장전이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림사의 주요 건물 배치는 중문, 오층석탑, 금당, 강당에 이르는 중심축선이 남북으로 일직선상에 놓이고, 건물을 복도로 감싸고 있는 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특이하게 가람 중심부를 둘러싼 복도의 형태가 정사각형이 아닌, 북쪽의 간격이 넓은 사다리꼴 평면으로 되어 있다.

발굴조사에서 드러난 중문 앞의 연못이 정비되어 있고, 석불좌상을 보호하기 위한 건물은 1993년에 지어졌다. 백제 때에 세워진 5층석탑(국보 제9호)과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석불좌상(보물 제108호)이 남아 있다. 출토 유물로는 백제와 고려시대의 장식기와를 비롯하여 백제 벼루, 토기와 흙으로 빚은 불상들이 있다.

1) 정림사지 오층석탑 (국보 제9호)



부여 정림사터에 세워져 있는 석탑으로, 좁고 낮은 1단의 기단위에 5층의 탑신을 세운 모습이다. 신라와의 연합군으로 백제를 멸망시킨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정벌한 기념탑'이라는 뜻의 글귀를 이 탑에 남겨 놓아, 한때는 '평제탑'이라고 잘못 불리어지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다. 기단은 각 면의 가운데와 모서리에 기둥들을 끼워 놓았고, 탑신부의 각 층 몸돌에는 모서리마다 기둥을 세워놓았는데, 위아래가 좁고 가운데를 볼록하게 표현하는 목조건물의 배흘림기법을 이용하였다. 얇고 넓은 지붕돌은 처마의 네 귀퉁이에서 부드럽게 들려져 단아한 자태를 보여준다. 좁고 얇은 1단의 기단과 배흘림 기법의 기둥표현, 얇고 넓은 지붕돌의 형태 등은 목조건

물의 형식을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단순한 모방이 아닌 세련되고 창의적인 조형을 보여주며, 전체의 형태가 매우 장중하고 아름답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과 함께 2기만 남아있는 백제시대의 석탑이라는 점에서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며, 세련되고 정제된 조형미를 통해 격조높은 기품을 풍기고 있는 아름다운 작품이다.

2) 정림사지 석불좌상 (보물 제108호)



충청남도 부여의 정림사지에 남아 있는 석조불상으로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국보 제9호)와 남북으로 마주 보고 있다. 정림사는 6세기 중엽에 처음 창건되어 백제 멸망 때까지 번창하였던 사찰로 고려시대에 다시 번창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석불상은 고려 때의 번성을 보여주는 것

이다.

지금의 머리와 보관은 제작 당시의 것이 아니라, 후대에 다시 만들어 얹은 것으로 보인다. 신체는 극심한 파괴와 마멸로 형체만 겨우 남아 있어 세부적인 양식과 수법을 알아보기 어렵지만, 어깨가 밋밋하게 내려와 왜소한 몸집을 보여준다. 좁아진 어깨와 가슴으로 올라간 왼손의 표현으로 보아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 왼비로자나불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불상이 앉아 있는 대좌는 상대·중대·하대로 이루어진 8각으로 불상보다 공들여 만든 흔적이 역력하다. 상대는 연꽃이 활짝 핀 모양이며, 중대의 8각 받침돌은 각 면에 큼직한 눈모양을 새겼다. 하대에는 연꽃이 얹어진 모양과 안상을 3중으로 중첩되게 표현했다. 현재 불상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가 백제시대 정림사지의 강당 자리로 이곳에서 발견된 명문기와를 통해 이 작품은 고려시대에 절을 고쳐 지을 때 세운 본존불로 추정된다.

토요법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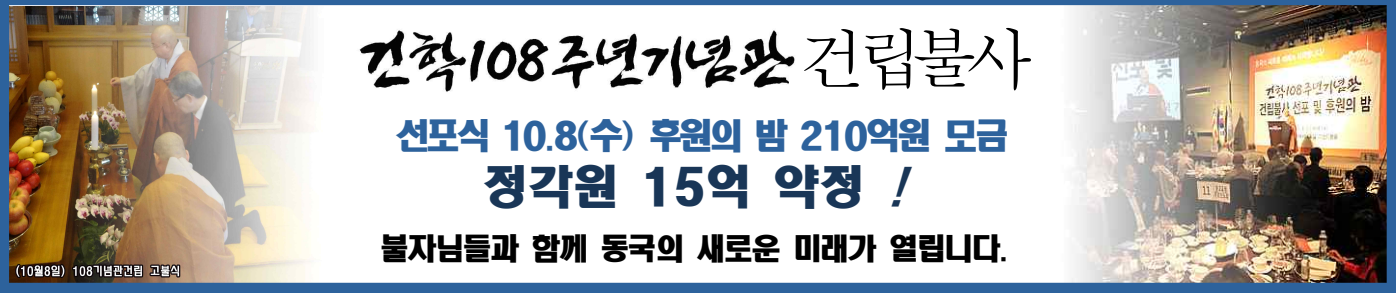
날 짜	법 회 주 제	법 · 강 사
10.18(토)	담마토크	회일스님 (전주 참좋은우리절 주지)
10.25(토)	나의 신행이야기	공영대 (동국대 학사지원본부장)



사찰순례 동참 보시자

고정숙, 변미자, 유경희, 선정지, 이수경, 정애영, 조미옥

- ❖ 단우물어린이집 - 캔커피
- ❖ 동백회 - 떡
- ❖ 보리수신당데이케어센터 - 두유
- ❖ 신당5동어린이집 - 빵, 음료수
- ❖ 중림종합사회복지관 - 과자



정각원 토요일보 불기 2558(2014)년 10월 11일 제262호(週刊)

가을빛 사찰순례

< 추계사찰순례 일정표 >

< 순례 포인트 >

- 일 시 : 불기2558년 10월 11일 (토) 08:00~18:30
- 순례지 : 무량사, 백제문화단지, 정림사지
- 인 솔 : 원장스님, 교법사스님, 고금스님, 명진스님, 김창균(교수)

- 무량사 - 극락전, 오층석탑, 석등, 소조
아미타삼존불좌상 등
- 백제문화단지 - 사비성, 능사(陵寺)
- 정림사지 - 오층석탑, 석불좌상

시 간	진 행
07:20~08:00	동국백년비 앞 집결
08:00~10:40	출발(동국대→무량사)
10:40~11:40	무량사 참배
11:40~12:40	점심공양
12:40~13:40	무량사 → 백제문화단지
13:40~14:50	백제문화단지(능사 참배)
14:50~15:10	백제문화단지→정림사지
15:10~16:00	정림사지 참배
16:00-18:30	정림사지→동국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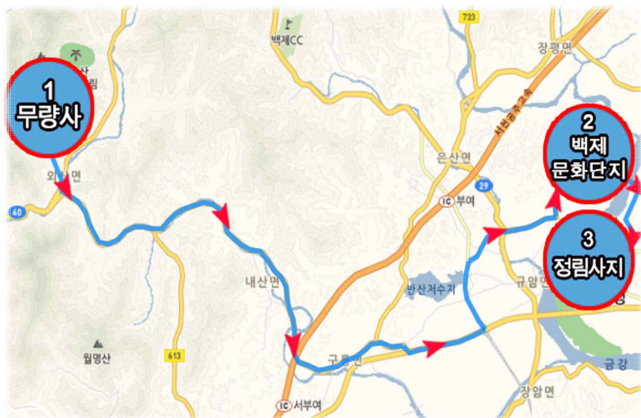
※ 비상연락망

- 윤호문(신도회) 010-9033-308
- 강은희(정각원과장) 010-6575-5831
- 이민기(정각원직원) 010-6281-1135
- 무량사종무소 041-836-5066
- 백제문화단지 041-635-7740
- 정림사지박물관 041-832-2721

※ 세부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무량사

< 사찰순례 위치도 >



신라시대 범일국사(810-889)가 창건하고 신라 말의 고승 무염선사(801-888)가 중수했다고 전해지나 초창 당시 세워진 건축물은 남아있지 않다. 고려 때 중창되어 크게 융성했으며 조선 임진왜란 때 불에 탄 건물들을 인조(1623-1649)때에 대중창한 후, 1872년 원열화상에 의해 중창되었다. 김시습(金時習)이 이 절에서 말년을 보내다가 입적하였고, 조선 중기의 고승 진묵대사가 아미타불을 점안하고 시심(詩心)을 펼쳤던 사찰로 전해진다.

무량사의 문화재로는 극락전(보물 제356호)과,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보물 제1565호), 석등(보물 제233호), 오층석탑(보물 제185호), 미륵괘불도(보물 제1265호), 당간지주(충남 유형문화재 제57호), 김시습초상(보물 제1497호), 김시습부도(충남 유형문화재 제25호) 등이 있다.

1) 극락전 (보물 제 356호)



본래 무량사 극락전은 고려 고종(1213-1259)때 세워졌다고는 하나 임진왜란 때 대부분의 전각들이 불타고 인조(1623-1649)때에 대대적인 중창을 하였다. 지금의 극락전은 당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흔치 않은 2층 불전으로 무량사의 중심 건물이다. 외관상으로는 2층이지만 내부에서는 아래·위층이 구분되지 않고 하나로 트여 있다. 아래층 평면은 앞면 5칸·옆면 4칸으로 기둥 사이를 나누어 놓았는데 기둥은 매우 높은 것을 사용하였다. 위층은 아래층에 세운 높은기둥이 그대로 연장되어 4면의 벽면기둥을 형성하고 있다. 원래는 그 얼마 되지 않는 낮은 벽면에 빛을 받아들이기 위한 창문을 설치했었는데 지금은 나무판 벽으로 막아놓았다. 아미타여래삼존상을 모시고 있는 이 불전은 조선 중기의 양식적 특징을 잘 나타낸 불교 건축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우수한 건물이다.

2)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보물 제1565호)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중층전각으로 이루어진 극락전의 주존불로 봉안되어 있는데, 17세기 대규모 사찰에서 널리 조성되었던 대형의 소조 불상 양식을 따르고 있다. 이 삼존상은 아미타·관음·대세지라는 분명한 아미타삼존 도상을 보여주고 있고, 이미 발견된 복장발원문을 통해 현진(玄眞)이라는 조각승과 1633년이라는 정확한 조성연대를 알 수 있어 조선후기 조각사 연구는 물론 조각 유파 연구에도 귀중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거대한 규모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불신의 전체적인 모습이 도식적으로 단순화된 감이 있으나 양대 전란 이후 자존심과 자신감을 회복하고자 노력했던 당시 불교계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17세기 전반기 대형불상에서 삼신 또는 삼세불상이 결합된 삼존형식이 대부분인 가운데, 극락전의 주존으로 아미타·관음·대세지보살이 결합한 삼존도상의 드문 예로서 그 가치가 더욱 크다.

3) 미륵괘불도 (보물 제1265호)



‘괘불’이란 야외에서 큰 법회나 의식을 진행할 때 예배를 드리는 대상으로 법당 앞뜰에 걸어놓았던 대형 불교그림을 말한다. 무량사 미륵괘불도는 미래불인 미륵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각 여덟 구씩의 화불을 그린 괘불도로 모시 바탕에 채색하였고 세로12m, 가로6.93m에 이른다.

미륵불은 두 손으로 용화수 나뭇가지를 받쳐 들고 머리에는 화려한 보관을 썼으며 입상으로 표현되었다. 보관의 끝에는 6구의 불상이 있다. 화기에 의하면 김희춘(金希春)과 김길복(金吉福)이 시주하여 혜윤(慧允)·인학(仁學)·희상(熙尙) 등이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무량사 오층석탑 (보물 제185호)



높이 7.5m의 고려 초기 석탑으로 보물 제 185호이다. 1971년에 이 탑을 해체 보수하던 중 5층 탑신 내부에서 사리장치(높이 26cm)가 발견되었는데, 청동합속에 수정병, 다라니경, 자단목, 방분향 등이 들어 있었다. 또, 제 4층 탑신 속에서는 금동아미타삼존불좌상이 발견되었다.

옥개석이 넓고, 상층 기단받침의 양식을 비롯하여 기단의 면석부재들이 모두 별석으로 구성된 점은 미륵사지석탑이나 정림사지오층석탑, 또는 감은사지석탑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옛 수법이며, 옥개석의 추녀곡선 처마 밑에 설치된 절수구는 신라 말기부터 고려 초기에 조성된 석탑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수법이다.

5) 무량사 석등(보물 제233호)



무량사의 주 전각인 극락전 앞에 위치한 높이 2.5m의 석등으로, 나란히 선 오층석탑(보물 제185호)과 함께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석등은 불전 앞에서 불을 밝히기 위해 세우는 석조물로 빛 공양을 위한 공양구의 하나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기본형은 하대석, 중대석, 상대석, 화사석), 옥개석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며 옥개 위에는 보주를 얹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량사 석등은 여러 개의 판석으로 조립된 지대석과 하대석은 평면이 방형이며 이 위에 연화석이 놓여 있다. 하대 상부는 원형의 연화대로서 복엽8판의 복련이 조각되어 있으며, 정면에는 1단의 각형 꺾임 조각하여 8각 간주를 받고 있는데 간석에는 아무런 조식도 없다. 상대석도 8각인데 하면에는 1단의 각형 꺾임 조각되었고 상면에는 아무런 조각이 없이 평평한 위에 부등변의 8각 화사석(석등의 점등하는 부분)을 두고 있다. 옥개석은 아래쪽에 넓은 꺾임이 얇게 각출되고 8각 추녀마다 반전이 뚜렷하여 전각의 반전과 잘 어울려 경쾌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낙수면에는 합각이 뚜렷하고 정상면에 보주가 있다. 보주는 연봉형인데 하부에 원형의 짧은 간석이 마련되어 그 중간에 한 줄의 선대가 둘러져 있다.

6) 무량사 동종 (충청남도시도유형문화재 162호)

전체높이 107.2cm의 동종이며 명문을 통해 주종장



정우, 신원, 혜학, 지감, 혜영에 의해 조선 인조14년(1636)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 수 있다. 동종 전체의 균형 잡힌 모양은 풍부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 조선 중기 전통양식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종에 새겨진 문양과 배치를 통해 다라니 신앙 또는 밀교적 신앙 등 당시 신앙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용뉴는 단용으로 마련된 종고리와 음통을 감싼 전통 형식을 따르면서 음통 끝을 연꽃으로 마무리하는 독창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유난히 둥근 천판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에는 원형범자를 돌려 배치하였다. 종신에는 보살삼존상을 시문하였는데 중앙의 보살을 중심으로 좌우에 작은 입상의 보살이 위치하고 있다. 네 개의 사다리꼴 연곽 테두리는 연화당초무늬로 장식되어있고, 내부에는 아홉 개의 연좌위에 연회를 두었다. 연곽 아래 용무늬 원패에는 '종도반석왕도미용(宗圖磐石王道彌隆) 혜일장명법주사계(惠日張明法周沙界)'의 기원문을 적었다. 하대는 연곽 테두리와 같이 연화당초무늬로 마무리되었다.

7) 당간지주(충청남도유형문화재 제57호)



당간지주는 기도나 불교의식 때 부처와 보살의 성덕을 표시하는 기의 깃대를 고정시켜 주는 받침대로, 보통 돌이나 쇠·나무 등으로 만든다.

무량사의 당간지주는 지주나 기단부에 아무런 수식이 없는 소박·단아한 당간으로, 고려시대 초기 작품으로 추정된다. 기단을 2개의 판석으로 짜고

그 사이에 간대를 끼워 넣었다. 간대 양쪽에는 45cm쯤 사이를 띄우고 화강암으로 높이 270cm의 지주를 세웠다. 그리고 간대 중앙에는 당간을 받치는 기둥 자리를 파고 그 주위에 원좌를 도드라지게 나타냈다. 지주는 직사각형으로 위쪽 모서리를 둥글게 마감하였다. 앞면의 가장자리에는 양각의 띠를 돌렸고, 옆면 가운데에는 세로로 돌대를 새겼다. 당간을 고정시키는 구멍은 네모반듯한 모양으로 상하 2개가 뚫려 있다.



조선 세조 때 생육신의 한 사람이자, 유학과 불교에 능통한 학자인 **김시습(金時習:1435-1493)**은 무량사에서 말년을 보내다가 입적하였는데, 때문에 이곳에는 김시습의 초상과 부도가 함께 전해진다.

1. 김시습 초상 (보물 제1497호)

김시습이 1493년(성종 24) 이곳에서 입적하자 승려들이 그의 영각을 절 곁에 짓고 초상을 봉안하였다. 그 뒤 읍의 선비들이 김시습의 품모와 절개를 사모하여 학궁곁에 사당을 짓고 청일사라 이름하고 그 초상을 옮겨



봉안하였다. 조선 전기의 초상화는 현재 몇 점 밖에 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도 원본을 본 떠 그린 것이거나 덧칠을 한 것이 많은데, 이 초상화는 원본 그대로 남아있어 가치가 높다.

초상화는 좌안 7분면의 복부까지 내려오는 반신상으로, 야인의 옷차림에 패랭이 모양의 모자를 쓰고 있다. 조선 시대 초상화는 대개 관복을 입은 인물을 담는데, 이 작품은 야복(관직에 나가지 않은 야인이 입는 옷) 초상화라는 점에서 독특하다. 얼굴과 의복은 옅은 홍색으로 맑게 처리하였고, 윤곽선과 눈·코·입 등은 옅은 갈색으로 그렸다. 전체적으로 얼굴과 의복을 옅은 홍색과 그보다 약간 짙은 갈색을 대비하여 조화 있는 화면을 만들었다. 수염은 회색 바탕에 검은 선으로 섬세하게 그렸다. 약간 찌푸린 눈매와 꼭 다문 입술, 눈에서 느껴지는 총명한 기운은 그의 내면을 생생하게 전하는 듯하여 초상화의 진수를 보여준다. 매월당집에 의하면, 김시습은 생전에 두 점의 자화상을 그렸다고 하는데, 이 그림이 그 자화상인지의 여부는 알 수가 없다.

2. 김시습 부도(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5호)

부도는 아래에 3단을 이루는 기단을 마련하여 그 위로 탑신과 머리장식을 올렸는데 모든 부재의 단면이 8각을 이루고 있으며 높이는 2.84m이다. 기단은 위·아래받침돌에 연꽃을 장식하고, 가운데받침돌에는 구름에 쌓인 두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다투는 형상을 새겼다. 탑신의 몸돌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고, 연꽃뿔개가 조각된 지붕돌은 꽃장식이 달린 여덟 귀퉁이가 높게 들려있다. 꼭대기에는 북발과 보주 등이 남아 머리장식을 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부도로, 당시의 작품으로는 조각이 매우 우수하고 화려하다. 일제 강점기 때 폭풍우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함께 넘어졌는데 그 때 밑에서 사리 1점이 나와 국립부여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2 백제문화단지

